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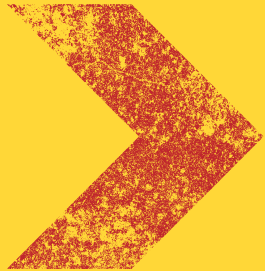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들어가며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_4

Q.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 _6

Q. 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 _8



01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왜 지지해야
할까요?

Q1.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_12

Q2. 싫다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_14

Q3. 사실이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_16

Q4.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_18

Q5. 다른 목적으로 성폭력 공론화를 악용하는 것 아닌가요? _20

Q6. 증거도 없는데 한쪽 말만 듣고 믿었다가 무고면 어떡해요? _22

Q7. 성폭력과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 ‘펜스룰’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_26

Q8.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있나요? _28

Q9.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_30

Q10.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아닌가요? _32



02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Q1. 내 지인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36

Q2. 내 지인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38

Q3. 우리 조직에 성폭력 관련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_40

Q4. 성폭력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와 지지자를 소문, 비난,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42

Q5. 사법부가 성평등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44

Q6.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46

Q7. 성폭력 사건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_48

Q8.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 2차 가해인가요? _50

Q9.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_52

Q10. 성폭력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54

들어가며 :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유·무형의 강제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하며,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사이버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기 삽입 여부와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폭력은 법적 정의에 맞춰 나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폭력 피해자는 법의 언어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층위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성적 학대, 피해자의 의사를 조종하거나 혼란케 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착취,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적 대상화 등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위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절대적 다수는 남성인 '성별화된 범죄'입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 이분법적 성별 고정관념, 이중적 성 역할 규범 등은 성폭력을 발생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남성중심적인 언어와 해석에 익숙한 사회구성원은 가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기 쉽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 피해의 사소화, 사생활 침해, 무고 위협 등으로 이어져 '2차 피해'를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성적 착취,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약자(주로 여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동안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맞서, 다양한 정체성/조건/위치/요구를 지닌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세상에 알리고, 대안적인 언어를 확산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성폭력 사건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2008)>, <보통의 경험(2011)>,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2013)>,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2014)>,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2015)> 등 자료집과 단행본을 제작·발간하고,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2015)>,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2017)> 등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2003년부터 14회에 걸쳐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성폭력 통념을 깨고 피해자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향하는 의심의 방향을 가해자에게 되돌리고,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든든한 지지망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18년 5~6월에는 대중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의지로 QnA' 해시태그 캠페인과 오프라인 캠페인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 이후로 성폭력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성폭력에 대한 질문을 모으고, 참여자들이 직접 답변을 적어보도록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질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참여자가 분노하고 반박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답변을 남겨 서로 용기와 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는 #의지로QnA 캠페인을 통해 대중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선정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담은 답변을 모아서 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성폭력 통념에 관한 10문 10답'을 다루고, 2부에서는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을 다룹니다. 성폭력에 대해 잘 모르거나 더 알고 싶은 사람, 성폭력 통념에 반박할 언어를 찾고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사람 등에게 이 자료집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피해자를 불시에 폭행 또는 협박해서 강간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성폭력 통념’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 많아, 실제 성폭력과 마주했을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는 86.5%에 달합니다. **명백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은 발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상황,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피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성폭력이 ‘로맨스’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상대와 합의하지 않고 키스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우리는 얼마나 익숙하게 봐왔던가요? 이처럼 폭력적인 ‘연애 각본’을 학습해온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변명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귀는 사이라면 성폭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에요. 설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피해 경험이 성폭력 통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지하기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평소 가해자를 신뢰했다면 그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라고 직면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람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 인식의 격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령 상대의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스텔싱(stalthing)도 성폭력입니다.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스텔싱을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지만,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고 사회적인 문제의식도 낮아 마치 ‘장난’이나 ‘유머’처럼 이야기되는 현실입니다. 법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면 피해자는 아무리 성폭력이라고 인식해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 규정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체마다 성폭력을 조금 다른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공동체일수록 성폭력을 법적 정의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간, 성추행과 같은 좁은 의미의 성폭력뿐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공동체 내 규정에 담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당사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당사자의 말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

성폭력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설령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렵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마치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폭력 여부가 결정되는 듯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성폭력이다' 혹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축소하는 일입니다.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등을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란, 그동안 가해자중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다', '성폭력이 아니라 연애/사랑이었다'라고 피해자의 경험과 판단을 부정해온 현실을 비판하며 등장한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 당사자가 속해 있는 집단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피해자다움'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제대로 삼아 피해자의 진술만 의심하는 대신, 가해자의 진술도 얼마나 일관되고 개연성 있고 믿을 만한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 간 **'적극적 합의'** 여부입니다. 적극적 합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즉 성폭력입니다. 적극적 합의란 상호적 성적 행위를 할 때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

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합의를 뜻합니다. 피해자가 침묵했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성적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는 등 충분한 자각 하에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거나, 합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판단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면 그것도 성폭력입니다.

적극적 합의는 각각의 성적 행위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성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과거 성 이력(성적 경험, 성적 행동, 성적 표현,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관련 기록 등),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은 합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 합의는 성적 행위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합의한 성행위를 하던 도중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면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해요.

적극적 합의를 잘 하려면 당사자는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단순히 성적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뿐 아니라 성적 행위의 범위와 한계, 순서와 방법, 수위와 강도, 도구 사용 여부, 피임 유무, 피임 및 성병 예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으로 여기고 여성은 성적 대상이나 수동적인 몸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성에 관해서도 평등하게 대화하거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꼭 필요해요.



01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왜 지지해야
할까요?

Q₁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성폭력통념
#피해자유발론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유독 “왜 단둘이 술을 마셨나요?”, “왜 모텔에 같이 들어갔나요?”, “서로 호감이 있지 않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으로 ‘성적 행위에 합의한 것 아니냐’, ‘피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또는 비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질문은 사회의 편견과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단둘이 술을 마셨거나 모텔에 같이 들어갔거나 서로 호감을 표시했다는 등의 사실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합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행실이나 특정 사실만으로 설불리 합의 여부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 같이 들어간 상황을 살펴볼까요?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모텔을 친한 친구끼리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늦은 밤에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만 잡고 잘게’라는 가해자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반적인 우정, 인간애, 신뢰 등을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로 뒤바뀌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따라갔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성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는 언제든지 합의를 철회하거나 성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피해자의 행실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 여부를 오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남성의 성욕은 너무 강해서 그런 상황에서 성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도중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나요?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유도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여지를 줬다는 논리를 ‘피해자유발론’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유발론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여성은 남성과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듯 피해자유발론은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성차별을 고착화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 차이에 의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우리 주변에서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비난, 무고 의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피해자가 존중받고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₂

싫다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NO_means_NO
#YES_means_YES

성폭력 피해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쉽게 듣습니다. 이것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성폭력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사기나 강도 등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거의 듣지 않는 질문이지요. 왜 유독 성폭력 피해자들만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명확하게 거부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성폭력 통념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개인에게 체화된 경험에 따라 피해 상황에 다르게 대응하며, 저항의 표현 방법이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의 이미지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만 떠올리는 것은 그 밖의 모든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응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이지요.

특히 여성의 “NO”를 “NO”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일수록 이 편견은 더욱 강화되고 성폭력은 처벌하기 어렵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내숭 떠는 것’으로 해석해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테고, 사회는 가해자의 주장을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러나 강력한 물리적 저항뿐 아니라 소극적, 수동적, 언어적, 비언어적 거부 의사 표현도 피해자에게는 최선의 저

항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합의로서의 “YES”만을 “YES”로 받아들이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과 달리 현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 몸이 얼어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스승, 직장 상사, 종교 지도자, 유명인 등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면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과 저항의 표현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통념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가해자는 손쉽게 처벌을 피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해야 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입니다.

Q₃

사실이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WhyIDidNotReport

성폭력으로 신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고 시기입니다. 피해 당시 또는 피해 직후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성폭력 여부를 더 엄격하게 따지고 피해자의 신고 의도까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하여 바로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을 가해자의 실수 또는 애정표현으로 여겨 피해를 축소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왜곡하거나 피해 상황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혹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고민하거나 기다리기도 해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에는 그 관계가 깨지고 주변인까지 힘들게 할까 봐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앞으로도 가해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위력(지위, 권력, 사회적 영향력 등)을 거스를 수 없거나, 신고해도 자신만 다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쉽게 신고를 결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고 및 수사·재판 진행 절차를 모르거나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가해자의 보복이나 위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소문이 나거나 2차 피해를 겪을 것을 우려하기도 해요.

또한,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성폭력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는 개개인의 욕구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해결을 바라고 선택합니다. 개인적 해결을 통해 가해자에게 사과문 또는 손해배상금, 가해자 교육 수강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론화를 통해 가해자뿐 아니라 소속 집단의 문화·인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 자신도 빨리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로 개인적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사과나 반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신고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신고는 피해자에게도 아주 힘든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려와 용기가 필요함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생각해주세요. 신고가 지체되었다는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걸림돌이 되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₄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피해자다움은없다
#피해자는일상으로

피해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왜 피해자는 ‘피해자다움’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노출 있는 옷을 입거나, 너무 당당하거나,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피해자답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거나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독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만 피해의 원인과 증명책임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한때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하러 가거나 법정에 증언하러 갈 때 ‘피해자답게’ 보일 수 있도록 옷차림, 화장법, 표정, 말씨 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는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었지만,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노출 있는 옷을 입든, 성적 행위에 관심이 많든, 똑똑하든, 당당하든, 분노에 차 있든, 우울감에 빠져 있든,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그 인식의 변화가 넓게 확산되었다고 보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대중 인식이 개선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성폭력 경험을 말하기(Speak Out)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큰 도전이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여전히 우리 사회와 법정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모습을 오히려 ‘피해자답지 않다’는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을 ‘피해가 없었다’는 근거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의 주변 또는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퍼져 심각한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사·재판기관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의심은 무고 인지, 보복성 역고소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각각의 성폭력 피해자는 살아낸 역사와 배경, 개인이 가진 특성, 피해의 정도와 상황 등이 서로 다릅니다. 피해 상황에서 대응하는 정도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다움’이란 하나의 잣대로 피해자를 해석하고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다움’은 없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피해자임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 주세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는 옷을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멋지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피해자의 모든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버리고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 주세요.

다른 목적으로 성폭력 공론화를 악용하는 것 아닌가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피해가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참았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터져 나왔구나!'라고 말하기보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되묻습니다. 피해자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말한 의도뿐 아니라 피해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가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연애 관계가 안 좋게 끝났을 때, 상대의 애정을 구하다가 거부당했을 때 등에 보복하기 위해 과거 사실을 들춰내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의심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 들켰을 때,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 등에 둘러대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는 의심이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직장 상사, 교수, 문화·예술계 지도자 등의 명성이나 명예를 손상해 그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고 상대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및 고소를 한 것이라는 '꽃뱀' 의심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이없는 음모론이 너무 많습니다.

성폭력 공론화는 피해자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세상에 말할 때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드러냄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의심과 비난, 보복성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설령 피해 사실을 인정받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피해자에게 낙인 찍는 시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의 피해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또는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유포시키는 헛소문과 터무니없는 험담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회 정의를 믿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의도로 피해 사실을 말하는지 검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해결을 바라고 있는지 귀 기울여주세요.

Q₆

증거도 없는데 한쪽 말만 듣고 믿었다가 무고면 어떡해요?

#강한객관성
#보복성역고소
#무고죄_역고소가_무고죄다

성폭력은 주로 두 사람 또는 적은 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말을 더 쉽게 신뢰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사회적/정치적/물리적/정서적 힘과 권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을 가진 피해자에게 행하는 인권침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망이 있거나 권위를 가진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믿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학자 샌드라 하딩은 '강자는 손쉽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자보다 약자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덜 왜곡된 사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고하는 것보다 강한 성찰을 동반하여 약자의 관점으로 사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은 가해자의 관점보다 강한 객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통해 다양한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가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해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성폭력 상황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으로 보복성 역고소를 일삼습니다. 언론은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 가해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쏟아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고, 이후에 본인이나 다른 피해자에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들어보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인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심을 갖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것은 일단 가해자를 '억울하게 몰린 사람'이라고 두둔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을 돌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였는가?",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확인하였는가?"라고 말합니다.

형법 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죄'를 말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때 성립하

로, 설령 증거가 부족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성폭력 상황이 존재했다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라도 피해자가 진심으로 성폭력이라고 생각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신고한 사실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10186 판결). 대법원 판례는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성 역고소를 하는 것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지침으로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지침에 따르면, ① 경찰은 반드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진행되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심증, 불신, 짐작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철저한 수사 결과, 어떠한 성폭력도 없었고,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로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경찰은 어떤 신고가 성폭력 무고라고 판단할 때 피해자의 조사 시 반응과 행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그를 빌미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이 성폭력인지 무고인지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할지도 모르는' 가해자를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피해자에게 향하는 질문을 가해자에게 돌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판단해보는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의심할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폭력과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 '펜스'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본래 펜스(Pence rule)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아내 외의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폭력 무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 여성과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스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성의 존재' 자체로 돌리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강간 문화를 개선하기보다 여성을 소외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득권을 쥔 남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피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성차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스는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하여 왜곡된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재생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지요.

따라서 펜스는 여성혐오(misogyny)이자 여성운동에 대한 백래시(Backlash)로 해석됩니다. '여성혐오'와 '백래시'는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직접적인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성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보호받는 역할 또는 타인을 보살피는 역할로 한정하거나, 수동적인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사고하는 것 역시도 포함됩니다. **펜스는 성폭력과 무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과의 공생 및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 무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폭력 무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성적 폭력을 의도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의해 왜곡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으로 성폭력 가해자라고 낙인 찍히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는 상황과 맥락, 상대와의 권력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는 "나는 자장면을 먹겠다"라는 말을 예로 들어볼까 해요. 발화자는 단순히 정말 '자장면을 먹고 싶다'는 뜻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발화자의 자유의 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을 한 상황이 어떤 회사에서 오랜만에 하는 회식 자리이고, 발화자의 위치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말은 즉각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한 행위이든 누군가에게 폭력 혹은 위력으로 인식되었다면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패턴의 소통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은 사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간 배려와 존중이 담긴 소통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도 적극적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Q₈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있나요?

#남성피해자
#가해자도_대부분_남성
#젠더규범에기반한통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 특히 강간을 처벌하는 법 조항 역시 2013년 6월 이전까지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었지요. 한국에서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규정을 보면 여전히 이성 간 성기 삽입 행위를 처벌하는 '강간죄'가 가장 높은 형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꼭 우리 사회가 구분해둔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은 아닙니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는 전체 성폭력 상담 중 6.5%나 되고,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신고 건수도 2012년 831건에서 2017년 1478건으로 지난 5년간 1.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남성 성폭력 피해자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남성 성폭력 피해 사례 중 82.8%는 가해자도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가해자는 10.2%,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6.9%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성애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2003년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성인지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72.9%가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가해자의 가해 대상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점은 외모나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간 성폭력 가해자는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남성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남성 피해자도 늘어났지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피해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와 관련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주변에 의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조롱, '남성이 응하지 않았으면 성행위가 가능했겠냐'는 의심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다양한 방식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으면서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충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 차이와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아동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고 생각하나요?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러한 젠더 규범에 기반한 통념은 남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통념에 대해 점검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누구나 자신의 성별, 성적체성,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Q₉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동성간성폭력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을 둘러싼 왜곡된 통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입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강간죄'를 이성 간 성기 삽입 시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양형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이성 간에 발생하는 피해로 한정하고, 특히 이성 간 성기 삽입에 의한 피해를 가장 큰 피해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성 간 성폭력에 견줘 가볍거나 사소한 피해로 바라보아도 괜찮을까요?

성폭력을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오해하는 맥락은 한국에서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제·개정되어 온 역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1995년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죄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습니다. 피해자도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국가가 성폭력을 처벌하는 이유는 여성의 '정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이 죄목은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법 해석상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지요.

2013년 6월에는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정체성이 무엇이든 '사람'이라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강간죄'보다 다소 형량이 낮은 '유사강간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

나, 항문, 성기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로 본다면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나 성기 삽입 여부, 삽입 위치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성 간 성폭력에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거나, 이성이 아닌 동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거나, 남성 피해자였다고 해서 그 피해가 더 가볍거나 사소하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동성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동성'이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구조 때문에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한 문제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권력 차이 또는 위계 관계로 보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충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소수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권력 차이와 위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입니다. 권력과 위계를 형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동성 사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이는 비대칭적인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폭력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아닌가요?

#성매매_내_성폭력
#성폭력은_성폭력이다

우리는 종종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폭력이 성매매로 둔갑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폭력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판매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의심받거나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성판매 여성이거나 이전에 성판매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본래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지만, 성매매 현장에서는 '성을 구매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성매매, 즉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여 동시에 돈을 매개로 성을 거래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폭력이 되지 않고, 모든 행위가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래란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합의하였을 때 계약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이행되는 것이지, 구매자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을 성매매로 둔갑하기 위해 가해자들은 '돈'을 활용합니다. 지난 2014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이 가출상태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5인

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 전에 떡볶이 등을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라고 판결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이전에 떡볶이를 먹은 것이 '화대'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성을 구매한 상황이었다면 성폭력은 발생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가해자를 만난 공간과 상황이 성매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동시에 성폭력 전후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는 성폭력입니다.



02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Q₁

내 지인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인의책임
#사건지원자

성폭력 사건의 문제해결과 피해자의 치유·회복은 모두 주변인들의 조력과 지지, 공감과 이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꺼낸 말에, 힘겨운 싸움 중에, 주변인의 반응은 원 사건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주변인의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1:1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조직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이를 성찰하고 바뀌어나가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 애인, 친구, 직장 동료, 가르치는 학생, 학교 동급생, 교회 사람, 공동체 구성원 등 주변인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된 것처럼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거나, 문제해결사를 자청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우선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피해자와 주변인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연대하는 주변인/지지자/조력자는 피해자

가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함께 지도를 그리고 밟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사건지원자’라고도 부릅니다. 피해를 목격한 경우 증언하기, 가해자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알아보기, 2차 피해에 대응하기, 피해자가 혼자서 맞이하기 어려운 일(경찰서·법원 동행, 재판 방청 등)을 함께하기 등, 문제해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다양한 만큼 주변인/지지자/조력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주변인/지지자/조력자는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 대신 내가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지, 중요한 판단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의 속도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또는 무조건 피해자의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사건의 경중을 따지며 피해자의 고통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등,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주변인/지지자/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하는 대신 말하기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피해자는 지금처럼 피해를 말한 이후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대신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지인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가해자’를 상상할 때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괴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 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개 성폭력 강력범일수록 불우한 가정환경, 학대 경험, 저소득계층, 저학력, 높은 알코올의존도가 있다고 설명해 왔으니까요. 뇌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골상학적 문제, 갈숨의 결핍, 조현병 등의 ‘질병’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는 가해자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가해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형사 고소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승소한 가해자들의 경우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폭력은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왜곡된 남성성과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기인하며, 가해자는 대부분 잘 교육받고, ‘정상 가족’에서 자란 지극히 ‘평범한’ 남성/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던 지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지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폭력 가해자를 ‘특별한 사람’, ‘괴물’ 등으로 묘사하면서 ‘일반인’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각인시켜온 미디어, 이론, 사회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날 때 자칫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또 한 번 곤경에 빠뜨리거나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가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성폭력은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과 맥락, 관계 속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3자가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말은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가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말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이 나빴다’, ‘어쩌다 실수한 거다’, ‘술이 문제다’ 등의 말로 가해자의 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가해자도 문제 제기를 받은 후에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위와 같은 말들로 가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의 잘못을 최소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을 사소한 일로 만들 때, 가해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어쩌다 한 실수’로 정당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은 반복될 위험이 큼니다. 혹여 가해자의 행동이 많은 남성/사람들이 쉽게 해 온 놀이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해자와 자신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 ‘피해자가 원래 예민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인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함께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재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를 대신해 변명해주거나, 가해자의 현재 심정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 과정을 견뎌내기보다는 스스로를 ‘피해자화’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피해자의 감정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할 만한 행동이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보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넷째, 나도 같이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주세요. 어쩌면 가해자의 행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평소 가져왔던 생각과 습관들 속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내가 속한 공동체/조직이 그러한 가치관들을 공감하거나 부추긴 적은 없었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주세요.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의 그러한 자세는 가해자에게도 구체적인 성장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Q₃

우리 조직에 성폭력 관련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체_내_사건해결
#피해자_회복
#가해자_반성
#공동체문화_변화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학교/직장/공동체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문화를 바꾸고 처리해나가기 위한 규율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대학의 경우에는 학칙 등으로, 직장 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제시된 성희롱 관련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내 성폭력이 '괴물화'된 가해자 개인과 '불쌍한'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조직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제도적 보완과 달리 조직은 너무 불완전하고, 감수성의 격차는 크며, 여전히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내에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고충상담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용기를 내어 신고했으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상급자이고, 나이/직급/고용형태/성별 등이 주는 중층적 권력 관계는 피해자의 말문을 막는 효과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처리의 목표는 피해자 회복, 가해자 반성, 공동체 문화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체에서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내규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너무 촘촘해도, 너무 거칠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촘촘할 경우, '법률만능주의'처럼 실무와 절차, 행정, 증거 등을 중심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거칠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이나 실무적 완벽함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가 공동체의 문화, 상황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뢰 있는 관계로서 소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배제될 때, 피해자는 공동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큰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처리 과정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건처리를 시작할 때 피해자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나눔이 있어야 하고(공동체의 현재 역량, 수준, 문제해결의 목표, 과정, 소요, 절차 등), 가해자 성찰 및 재발 방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당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건처리 방법과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건지원자 및 실무처리절차 진행자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공공적 해결의 위상과 실무, 한계, 피해자와의 파트너십, 가해자에 대한 교섭/설득력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고통에만 빠져 있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주체로서, 리더십 있는 사건 해결자로서, 운동가로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구성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넘어 꾸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Q₄

#성폭력2차피해
#직장내성희롱_사용자책임
#방관자되지않기

성폭력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와 지지자를 소문, 비난,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성폭력 피해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문화, 즉 2차 피해도 포함됩니다.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해자의 옷차림, 태도, 성격험 유무, 저항 여부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피해자유발론’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성폭력을 가벼운 루머나 가십쯤으로 소비하는 공동체 문화는 2차 피해를 더욱 확산합니다.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이미경, 2012)」에 따르면 2차 피해의 범주는 여섯 가지(①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 ②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 ③ 합의 강요, ④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⑤ 절차 고지·안내 부족, ⑥ 반복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무고 위협)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결과 이 중 피해자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비난과 뒷담화였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법으로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교육, 인사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대법원은 ①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②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가한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재판부는 ‘피해근로자 및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근로자는 자신으로 인해 동료가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타 근로자들도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피해근로자 등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직원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 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방관자 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는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단호하게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짚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차 피해는 공동체 내 성인지 감수성, 조직문화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요청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공동체가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해당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공동체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지지 자원이 됩니다.

사법부가 성평등한 판결을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법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국가가 공명정대한 수사과 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리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기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겪는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려면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예전에 비하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 사법절차 담당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갖는 권리(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변호인 선임권, 진술녹화제도, 비공개재판신청 등)를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경했던 송치, 기소와 불기소 처분, 항고, 재정신청 등의 법적 용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증인 확보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하기 전에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고소과정 전반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 170여 개의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는 피해자의 말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 및 공판 모니터링과 방청연대, 의견서 제출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편향적인 객관성’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 인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성희롱 사건 판결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학생 두 명을 수차례 성희롱하여 해임되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행정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와 1심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아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고등법원에서는 해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판결문에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서 피해자 관점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이러한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한 판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Q₆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재판과정에서의_2차피해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25%가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성폭력 2차 피해의 주된 요인으로는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의 영향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왜 그 장소에 따라갔는지, 왜 거부하지 못했는지, 왜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 후 일상적으로 가해자와 대화하고 '친절한' 문자까지 보냈는지……. 심지어는 피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은 간과한 채 획일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성폭력 2차 피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기반이 되어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나 변호인 선임권, 진술녹화제도, 비공개재판신청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갖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006년부터는 성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과 검찰, 재판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담현장에서 보면 법은 있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주목할만한 변화는 피해자의 권리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수치심'은 가해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하는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형사사법 절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는 형사, 검사, 판사 등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토론식 교육이 선행되고, 전담인력에 대한 다양한 후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재판절차가 보장될 때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입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는 그동안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능해왔습니다. 하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관심에 편승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확산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편견을 짚어내고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구조적인 문제, 원인, 해결책 등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해온 것입니다. 어떤 쪽의 보도가 더 많았을까요?

성폭력에 대해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면 예컨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폭력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보지 못하도록 매우 흉악하게 일어나는 강력사건만 조명하는 것, 공포만 강조하여 약자들이 숨고 강자들이 군림하는 현상을 확산시키는 것, 여성이 겪은 성적 침해는 곧 인격과 몸의 파괴로 단정 짓는 것, 가해자의 행동을 남성이라면 으레 갖는 욕망의 문제로 보는 것, 강간이 있는지 추행이 있는지 강조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보다 정조의 침해라는 과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 폭력을 언급하기보다 두루뭉술하게 ‘몸쓸 짓’, ‘성추문’, ‘일탈’ 등의 문제로 표현하는 것, 가해자에 대한 질문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는 것, 보도의 사실성을 높이겠다며 피해자의 자세한 정보나 상황을 묘사하는 것 등.

1998년 여성폭력추방주간에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현장’을 선포했습니다. 그중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사건 보도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2.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3. 인터뷰 전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4. 보도과정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자로 보일 권리
5. 남성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6.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7.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8.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응하지 않을 권리
9.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인터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남성중심적인 시각은 사실 우리 사회에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시각입니다. 이를 벗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시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대안적인 실천도 연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는 언론 대상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하고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배포하는 가이드라인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5가지 큰 지침은 ①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②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③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하기, ④ 신중하게 보도하기, ⑤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 가지기입니다. 누구든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먼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 2차 가해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떤 말은 피해자에게 힘과 지지로 연결되지만, 어떤 말은 오랫동안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을 위축시키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원래 성폭력 사건보다 더 큰 공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상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적 침해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그린 만화책 『악어 프로젝트 - 남자들만 모르는 성폭력과 새로운 페미니즘』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피해자는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 이 사람 팔을 잡아요!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피해자 스스로 먼저 대응했겠지요. 저자 토마 마티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목격자 역시 가해자의 위세가 두렵기 때문에, 가해자를 먼저 제지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 답을 기다린 것 아니냐고요.

피해자가 두려웠을 상황,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상황, 말하지 못하고 비밀로 해야 했던 상황은 나도 역시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약자들의 신체와 판단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당장 빠져나왔지!”라고 자신하며, “왜 그렇게 하지

못 했어?”라고 피해자를 질책하는 듯한 말은 결국 성폭력을 저항하지 않은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피해자의 탓,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가해자의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아니게 되지요. 그런 전제에서는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없게 되고, 피해자의 여러 아픔도 유난 떠는 문제가 되고,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권리를 되찾고 사회적 힘, 법과 제도와 연결되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가해자중심적 사회가 오랫동안 유포해온 성폭력에 대한 ‘신화’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다면, 더 조심했다면, 고분고분했다면, 혹은 소리를 질렀더라면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편견’입니다.

피해자에게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겪은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에 대해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약자들이 연대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여성들이 항상 들어온 ‘넌 성폭력에 대응 못 해’, ‘그냥 고분고분하게 있어!’라는 말에 맞서서, 써보지 않았던 몸을 써보고 판단력과 기민성, 자신감을 높여가는 배움의 장입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질책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대응력을 높일 기회를 빼앗겨온 사람들이 서로 연대, 격려, 지지,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Q₉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반성은_가해자의_의무
#용서는_피해자의_자유

『용서의 나라(원제 The South of Forgiveness)』를 쓴 토르디스 엘바는 1996년 테이트 상대로부터 강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후 9년간 섭식장애, 알코올 의존, 자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가해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8년간 답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2013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는 지역 가운데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나, 7일간 그 지역의 강간위기센터, 인종차별 수용소 등을 방문하며 치열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피해자의 8년 동안의 말하기,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직접 부딪힘. 그로 인해 가해자인 톰 스트레인저는 그간 한 번도 하지 못한 처절한 사죄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체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에 이르고, 가해자로서, 성폭력 문제해결의 한 축으로서, 책에 이름과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와 함께 참회와 직면, 용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현대적인 국가, 성문법, 재판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가해자가 생기면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보상과 사과를 하게 했다고 해요. 고통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분담하려는 사회에서는 반성, 변화, 사과하는 방법 등도 함께 발달하겠지요.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반성과는 매우 멀다고 느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사회,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제지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의심하는 게 더 익숙한 사회입니다. 약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가 될지언정 강자, 권력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사회 같기도 합니다.

성폭력 관련 법정형은 계속 상향되어왔지만, 그 법에 적용받으며 다시는 성희롱/성추행/강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보다, 신고/기소/처벌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너만 처벌받을 거냐며 '성공사례'를 광고로 부추기는 가해자 변호사 시장, 그들의 '작전'을 받아주는 법원, 불법촬영 등 성폭력 가해를 오히려 자랑하고 인증하는 남성연대 플랫폼이 존재하는 한, 가해자들이 학습하고 모방하게 되는 것은 반성과 변화가 아닌 꼼수/무책임/부인/회피/피해자에 대한 공격일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반성하고 변화하게 하려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넘기는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폭력도 제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고, 사과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도요.

성폭력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들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이 드러나면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화장실에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은 법정에서 다루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반영됩니다. 만약 ‘남성은 성욕을 참을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갖고 대책을 세운다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옷차림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예방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근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귀결되었지요.

그러나 ‘성폭력은 성별 규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위계적인 권력 관계와 같이 일상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는 구조 위에서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다른 해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남성성, 수동적인 여성성’과 같은

성별 규범이 일방의 침해와 폭력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은 성별 규범의 변화와 균열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위계적인 권력 관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이용한다는 문제의식은 관계 내 평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와 소수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이 문제라면 이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성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획을 실행해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내가 있는 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적인 문화는 한번의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 그런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 꾸준한 노력, 시간, 공간,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논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발행일 2019년 3월 31일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만든이 김보화, 김신아, 김혜정, 노선이, 박아름, 유호정, 이미경, 전해영, 정정희, 조은희, 최란
편집 박아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366-24) 2층

전화 02-338-2890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블로그 stoprape.or.kr

페이스북 /ksvrc1991

트위터 @stoprape

후원 **365mc** 병원·의원, **한국여성재단**

지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